

청년 79.5% “첫 월급 200만원 못 받아”

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
재학중 아르바이트까지 포함 첫 일자리 임금

우리나라 청년들 열명 가운데 여덟명은 첫 일자리에서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통계청이 16일 발표한 '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'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(15~29세)이 처음 가진 일자리에서 받는 월 임금은 150만~200만원 구간이 34.1%로 가장 많았다. 100만~150만원 구간은 27.7%, 100만원 미만은 17.6%였다. 200만~300만원 구간은 18.1%, 300만원 이상은 2.4%로 나타났다.

전체의 79.5%는 월 임금 200만원 아래 구간에 있는 셈이다. 물론 여기에는 통념상 '취업'이라 보지 않는 재학중 아르바이트까지 포함돼 있다.

1년 전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율은 82.7%였는데 올해는 몰가 상승률만큼 임금이 올라 그 비율이 다소(3.2%p) 축소됐다. 50만~100만원 구간과 100만~150만원 구간 비율이 각각 -1.0%p, 3.4%p씩 줄고 150만~200만원과 200만~300만원 구간은 0.3%p, 2.8%p씩 늘어났다. 3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들의 비율도 0.4%p 증가했다.

청년층 907만3000명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48.4%로 1년 전보다 0.7%p 높아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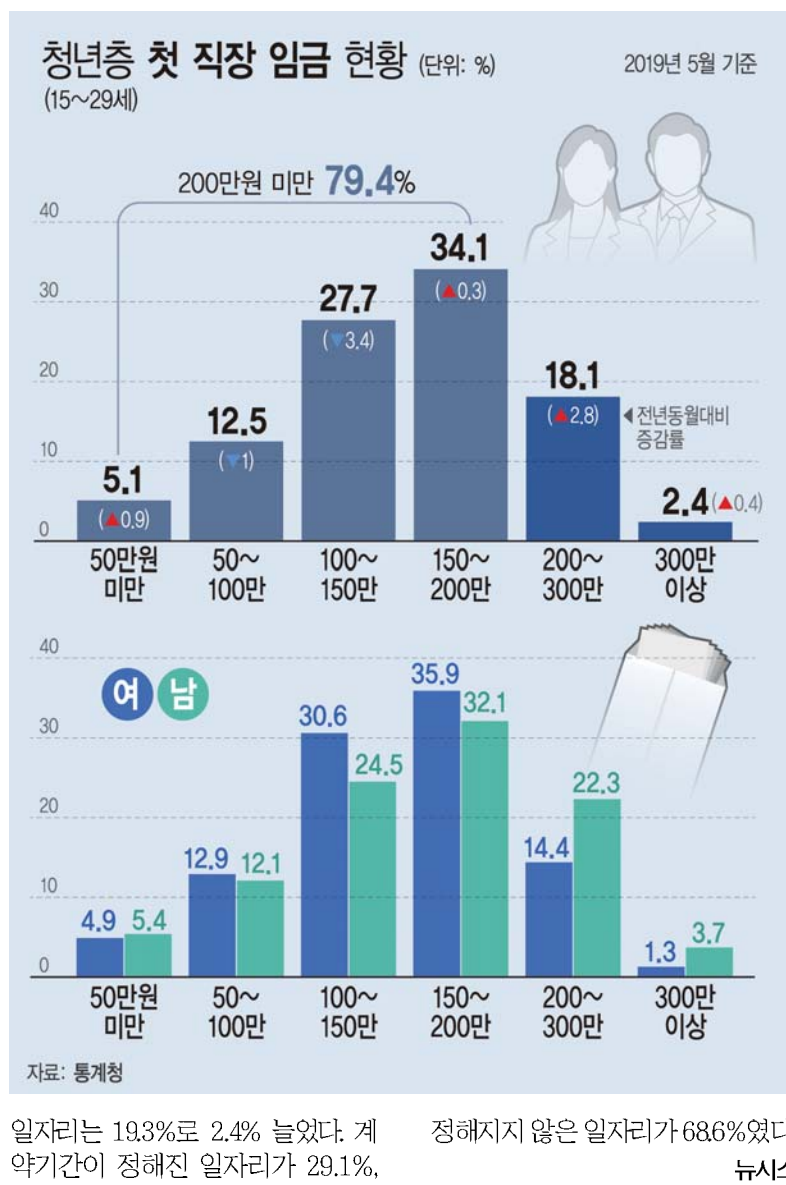
고용률은 43.6%로 0.9%p 상승했다. 취업에 뛰어든 연령대인 25~29세 고용률은 20.6%로 전년 동월 대비 0.9%p 상승했다.

반면 실업률은 9.2%로 같은 기간 1.1%p 하락했다. 정통부 통계청 고용 통계과장은 “외국 관광객 증가세 등으로 숙박·음식업 중심으로 (청년층) 일자리가 증가했다”며 “15~19세의 경우 재학 중 하는 아르바이트이고, 25~29세의 경우에는 음식업 쪽의 임시직과 상용직이 늘었다”고 분석했다.

직업별로 보면 서비스·판매종사자가 32.1%로 가장 많았다. 그 다음으로는 관리자·전문가(24.1%), 사무종사자(21.7%), 기능·기계조작종사자(12.3%), 단순노무종사자(9.4%) 순이었다.

산업별로는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40.7%), 도소매·음식숙박업(29.4%), 광업·제조업(15.8%) 순으로 나타났다.

근로형태를 보면 전일제 일자리는 78.3%로 2.8%p 줄었고 시간제



상반기 자동차 생산·수출 ‘증가’ “신형SUV·친환경차 판매↑”

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'국내 자동차 산업동향'을 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생산은 202만8332대로 전년 대비 1.2% 증가했다.

업체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출시된 현대 팰리세이드는 4만4799대 생산했다. 기아 쏘울과 쌍용 코란도는 각각 8만886대, 9012대 생산했다. 이는 전년 대비 22.4%, 50.1% 증가한 수치다.

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.5% 늘어난 124만6454로 집계됐다. 전기차 등 친환경차(30.1%)와 신형 SUV(9.7%) 위주로 판매 호조를 보였다.

지역별로 보면 아시아(22.1%), 북미(21.3%), 동유럽(17.4%), 아프리카

(16.5%)에 대한 수출이 늘었다. 반대로 중남미(-23.7%), 중동(-20.9%), 오세아니아(-9.3%), 유럽연합(-0.9%)은 줄었다.

자동차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3.7% 줄어든 86만7380대로 집계됐다. 특히 아우디·폭스바겐·BMW 등 수입차 판매가 21.8% 감소했다. 국산차 판매는 -0.1% 줄어들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.

올해 상반기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.4% 증가한 7만1422대로 집계됐다. 보조금,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확대되면서 내수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.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 인프라 확충도 소비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.

뉴시스

“마라맛 스낵도 나왔다”

해태 ‘빠세 마라’ · ‘신당동떡볶이마라’ 출시



우맛과 매콤한 정통 사천 요리의 맛이 색다른 조화를 이룬다.

신당동떡볶이 마라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매운맛을 담았다. 매운 고추장과 톡 쏘는 마라의 매운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. 과자 크기를 1.5cm로 줄이고 포장도 포켓사이즈로 제작해 휴대하기 좋

다. 해태제과 관계자는 “마라맛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만큼 고유의 맛과 어울리면서도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밸런스를 찾아내 마라요리 스낵으로 완성했다”고 말했다.

해태제과 관계자는 “마라맛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만큼 고유의 맛과 어울리면서도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밸런스를 찾아내 마라요리 스낵으로 완성했다”고 말했다.

207cm 서장훈처럼 긴 ‘서장훈 김밥’

GS25 신제품

지에스(GS)25가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(45)과 함께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내놨다. 김밥·소시지·샐러드 등으로 207cm에 달하는 서장훈의 큰 키처럼 기존 제품보다 양을 늘린 게 특징이다.

서장훈수퍼통치즈김밥은 일반 김밥의 1.5배 길이로 출시됐다. 유어스207후랑크와 유어스207소세지는 서장훈의 실제 키 207cm를 반영해 길이가 207mm다.

서장훈반숙란에는 반숙 계란 3개가 들어있다. 일반 반숙란은 계란 2개가 들어있다.

GS25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가맹점 발주가 시작된 ‘서장훈 시리즈’는 첫 날에만 20만개 이상 주문이 들



어왔다. 특히 서장훈수퍼통치즈김밥은 GS25 김밥 부문에서 매출 1위를 기록 중이다.

GS25 관계자는 “신상품을 기획할 때 맛의 차별화 뿐만 아니라 상품의 스토리까지 고려해 기획하고 있다”며 “유명인 모델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상품에 잘 살려 맛의 차별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고객 경험까지 선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”고 했다.

뉴시스

韓 친환경차 수출 연평균 33% 늘어

다양한 차종·기술경쟁력

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최근 수년간 한국 자동차 수출 물량은 줄어들었으나 하이브리드·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수출을 통해 한국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.

1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2012년에서 지난해까지 6년간 연 평균 4.2% 감소했으나, 친환경차 수출은 같은 기간 연 평균 33.1% 증가했다.

친환경차 수출이 급증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이브리드차·전기차·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 차종이 개발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.

2010년 기준 ‘쏘나타’에 HEV기술을 얹은 모델이 처음 수출되기 시작했으며, 2013년에는 전기차와 수소전기

차, 2015년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까지 수출하는 등 지난해 기준 HEV·EV·FCEV·PHEV 등 모든 동력원을 기반으로 하는 14종의 수출 모델이 투입됐다.

한국 자동차업체의 친환경차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됐다.

기아자동차 ‘쏘울EV’는 출시 후 두 번이나 주행거리를 확대(150→380km)하며 성능을 개선시켰으며, 현대자동차 ‘아이오닉EV’는 2017~2018년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형차 중 연료 효율이 가장 우수한 자동차로 선정될 정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.

이에 따라 글로벌 친환경차 수요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1.2% 증가하면서 2016년 245만대에서 지난해 408만대로 성장했으며, 이는 주요시장 중심 으로 친환경차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.

살기 좋고, 기업하기 좋은
광주에 투자하십시오

친환경 자동차·에너지·문화산업 육성

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

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

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

GWANGJU